IMF 넘는 지혜 팔만대장경 속에…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글꼴·입력프로그램 연내 개발 무난 자동교정 작업·인터넷 서버도 구축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에 힘입어 디지털대장경의 틀과 도구가 될 글꼴·입력프로그램 등의 연내 개발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에 사용된 한자글꼴 개발에 주력해 온 대장경연구소는 지금까지 이체자를 포함한 한자글꼴 61,379자, 한글 자형 45,476자, 산스크리스트어·팔리어 등 기타 문자 5,573자 총 11만2천4백2십8자를 개발했다. 또 이 글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고려워드 개발도 10월중 개발된다. 고려워드는 중국 정마입력법과 음(音)에 따른 입력, 부수(部數)와 획수(劃數)에 따른 입력방법 등 다양한 한자 입력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편집도 용의하다.

이와 함께 대장경 1차 교정작업을 토대로 한문 자동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70여명의 전문 교정인하는 일을 3개월만에 대장경 교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8월말 개발되며 자체 시험을 거쳐 98년 하반기부터 2차 교정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체 인터넷 서버도 5월 구축·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상공간에서의 팔만대장경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법회후원인 명단

법융사 ▶법과스님 ▶승혜스님 ▶원과스님 ▶강용석 김연숙 강지혜 강지인 강지상(경기 성남) ▶권오익 류평동화 권재범 권준범 권도경 김호원 윤혜정 권지윤(경기 고양) ▶김기태 박혜자 김면희 김진우 현원식 김미은 현제욱 송영민 김영희 송지현(서울 성북구) ▶김부웅 전대도행 김태익 김유정(경기 수원) ▶김시연 한미경(서울 서초구) ▶김영수 최의남 김두현 김정현(서울 송파구) ▶김오구 허양육 김현모 김윤모 김종모(경기 성남) ▶김중기 장대혜성 김종현 김미정 김종진 서정영(서울 송파구) ▶류시영 이무상각 류정하 류이주(서울 송파구) ▶문재운 변대자월 문정홍 문진경(서울 광진구) ▶박은수 윤체자 박유진 박명주(서울 송파구) ▶박호동 이공덕 인 박노조 이유정 박남규 박상헌 윤성미(서울 송파구) ▶서정숙 이종주 이종란(서울 송파구) ▶신영우 김옥임 신운성 신원성 신용성(경기 성남) ▶신제덕 안희숙 신동현 신명선 신현정(서울 송파구) ▶이광규 박화자 이봉학 이승학(경기 성남) ▶이규협 이옥란 이승진 이은재(서울 강서구) ▶이병규 박순희 이세규 이숙영(서울 송파구) ▶이응원 이요익행 이정환 이준환 이수연(서울 서초구) ▶전병찬 고일승화 전상엽 전혜연 전지연 전상은 박대수 박해명 박재은 박영준(서울 강남구) ▶정혜자 권보람 권보리(서울 송파구) ▶진인화 이옥형 진승욱 김미숙 진승식(서울 성동구) ▶최규정 갑기윤 최석용 송종랑 최연호 최윤혁 최길호 신연숙 최다정(서울 노원구) ▶최민섭 정옥란 최재승 최동희(서울 송파구) ▶홍용남 박승정 홍현희 홍승만(서울 송파구)

심우사 ▶강명종 박인자 강호찬(부산 수영구) ▶김경동 박경복 김은정 김세현 최현순(부산 수영구) ▶김대진 김영남 김호길 김현숙 김재관 김매화(부산 수영구) ▶김명심 송재현 양문선 송상민 송현준(부산 수영구) ▶김석룡 한옥희 김정훈 김현수 구삼연(부산 수영구) ▶김우동 김순애 김숙현 김세현(부산 수영구) ▶김칠한 이명숙 김태근 김태경(부산 수영구) ▶김형목 정귀한 김승규(부산 금정구) ▶남기원 정덕남 남영희 남주희 남덕현(부산 수영구) ▶남봉출 김광석(부산 금정구) ▶박병재 하화순 박일혁 구현정 박재권(부산 수영구) ▶서수택 김금자 서주영 서명용(부산 수영구) ▶송여래심 박성섭 최보금 박시내 김정훈 박창섭 정재미 박상현 박현지(부산 수영구) ▶이동윤(부산 해운대구) ▶이용준 김둘필 이영근 최순자 이숙향 이경희(부산 해운대구) ▶전광중 삼석순 전기철 전기호(부산 금정구) ▶정자현 장정화 정인덕 정민구(부산 수영구) ▶조한곤 박분녈 조용관 강영채 조성문 조수민(부산 수영구) ▶추연학 전봉남 추정하 추경미 추혜경(부산 수영구) ▶허봉기 서정숙 허광일 허성일 허현일 한선옥 최지은 이향숙(부산 수영구)

혜원정사 ▶김형인 하성미(경남 김해시) ▶안충효 안수일 안미숙 박지일선(경남 양산시) ▶오병환 정순덕 오세윤 오영준(부산 금정구) ▶우동석 최만자 우상욱 박상록 우인순 박승수 박승현 한태현 우은주 한지아(부산 금정구) ▶김상범 김영수 김기범 김수범 김철범 신선자(부산 금정구) ▶류범석 심보소월 최원필 류성연 류민정(부산 금정구) ▶김을홍 정실상화 김만홍 김만성 김만용 서영자 김희수 방진영 김성녀 김지훈 김은준(부산 금정구) ▶이지훈 박광명화 이참희 이용희 이장은 이수은 홍영애 서경숙(부산 금정구) ▶성무상성 김태복 허혜숙 김창영 김문주(부산 금정구) ▶최기영 문일심행 최지원 박현선 최은경 최용우(부산 금정구) ▶박한종 이광명심 박성혁 박민정(부산 금정구) ▶권용진 서보덕행 권구택 홍순애 권우람 권한솔(부산 금정구) ▶정학준 정현호 박성덕화 정서영(부산 금정구) ▶정송공월 김성안 정심덕화 김연태 김학구 김종하(부산 금정구) ▶송귀은 오도일심 송봉조 송미정 송봉창(부산 금정구) ▶문우삼 박선심화 문기진 이지행 문자진 문성현 문준희(부산 금정구) ▶성기수 김태영 강미경 김태철 김태혁 김재영 김호영 김우명 김준영(부산 금정구) ▶김재환 김진실명(부산 금정구) ▶김삼룡 신묘임 김우연 신원현 서순이(부산 금정구) ▶허정 조취향 허성무 허양무 허성희(부산 남구) ▶신덕희 문윤자 우상철 우임순(부산 동구) ▶윤영만 박정광화 윤민수 윤난혜 이운성 윤성혜 이재훈(부산 동구) 안종표 송청정행 안기범 안강범 안희정(부산 동래구) ▶신상덕 박현선수 신경훈 신경일 김위숙(부산 동래구) ▶강관후 하여래심 강완수 이경야 강문경(부산 동래구) ▶동형련 박수완 박경환 박민정(부산 동래구) ▶김진감 강성례 김용태 김태연(부산 동래구) ▶황일연 이순호 황상현 황혜원 황선옥(부산 동래구) ▶서기순 김종숙 박재열 김명순 박선신 박선건(부산 동래구) ▶홍종만 김정자 홍안주 손지혜 홍혜숙 박준서 구영진 홍월광(부산 동래구) ▶신철식 이말분 신용정 유정미 신형진 신용도 이입숙 신용득 하미정 신유승 신민준(부산 동래구) ▶정현규 남상일 정호석(부산 동래구) ▶추선금 이현구 이화영 이주영 이선민(부산 동래구) ▶배종욱 김광명화(부산 동래구) ▶하성미 한선정인 하동효 하은정 김병돈(부산 동래구) ▶이박 노숙희 이지영 이미리 이기연 이승훈(부산 동래구) ▶송종훈 하성희 송하윤(부산 동래구) ▶박성만 조임륜심 박석곤 박희숙(부산 동래구) ▶김상용 박지월성 김환진 김영균 김영미(부산 동래구) ▶하대봉 성원각심 하영희(부산 동래구) ▶변희성 변성재 변선혜 송홍자(부산 동래구) ▶김정법 최옥자 김천 김준 김석 김경 최은하(부산 동래구) ▶전대상월 류창하 류방하 류정훈 류승엽 류지원(부산 부산진구) ▶장기성 김유선(부산 부산진구) ▶정강수 황영자 정용훈 정용우 정미순 (부산 부산진 구) ▶홍정덕심 배영상월 배청량솔 유성준 민문식 배도광월 김면수 배경연 이상영 배상일(부산 북구) ▶서무금 정진모 정홍모 정현모 김미순 김경옥 김금옥 정지세 정석재 정현재(부산 북구) ▶이승재 곽정심행 박승찬 박승경 박승현(부산 사상구) ▶김경실 채화자 김근영 김양국(부산 사상구) ▶허종수 이복윤 허정도 허효진(부산 사하구) ▶서영범 서창건 서창우 유경희(부산 서구) ▶박종천 김무상공 박하환(부산 서구) ▶하원중 이경림 하영선 하정준 하용태 이정숙(부산 수영구) ▶도종덕 전만덕행 도원욱 도명성(부산 수영구) ▶강임규 반미경 강은희 강민주 강성식(부산 수영구) ▶배성열 권언중 백주영 배수범(부산 수영구) ▶박벽봉 하묘범심 박지광 박영여행(부산수영구) ▶김용수 정보현행 (부산 수영구) ▶박두환 박년조 박신영 정광자(부산 수영구) ▶하영찬 문인행성 하능인해 하민균 정덕임(부산 수영구) ▶김옥태 김영원 조옥남(부산 연제구) ▶서영기 고문수행 서동수 황성희 서윤희 서대범(부산 연제구) ▶배종원 김갑연 배지운(부산 연제구) ▶한은정 이상익(부산 연제구) ▶김호성 박숙자 신륜기 신춘광 김미숙 신창기 구미선 신재우 신재헌 신영훈(부산 연제구) ▶손우엽 강대원 김남숙 강기오 강병오(부산 연제구) ▶김종성 이정순 김태헌 김희정 김수미(부산 연제구) ▶김용환 신대명심 김근우 김현철(부산 연제구) ▶정동국 전보운장 정해성 정대성 허순옥(부산 연제구) ▶김민정 윤성영 윤정희 윤희정(부산 연제구) ▶이수조 유무임 이지예 이종훈(부산 연제구) ▶하재경 김남영 하혜진 하형진 하상진(부산 연제구) ▶장말순 최근식 김삼매행 최희봉 박수영 최용석 최원기 최소영(부산 연제구) ▶김경영 최자재행 김태진 김수현(부산 연제구) ▶정태인 정성호 정성운 정대근 정대호 강상연(부산 연제구) ▶이용우 신영숙 이상진 이상경(부산 연제구) ▶김준식 이순중 김태호 이필향 김태홍 최명희 김규남 김근남 김희영 김경량(부산 연제구) ▶김법천 제성심지 김민정 김수정(부산 연제구) ▶서윤식 양법광월 서동욱 서은진(부산 연제구) ▶정근식 유분자 정혜윤 정원석(부산 연제구) ▶박명복 오상술 박은애 박영규(부산 연제구) ▶윤귀자 김찬기(부산 연제구) ▶김철규 박보리심 김태욱 김희연(부산 연제구) ▶한성길 이정순 한창현 한동희 한유화(부산 연제구) ▶박진식 문경란 김두선 문영복(부산 연제구) ▶한병필 유명에 한창수 한창우(부산 연제구) ▶조용복 박무심월 조문기(부산 연제구) ▶손성현 조말조 손영채 손만주(부산 연제구) ▶최병세 김선도 최성득(부산 연제구) ▶임성오 김청량명 임창학 임윤희 권성근(부산 연제구) ▶이종도 이귀숙 이재화 이재희 이정화 이화선(부산 연제구) ▶오주흠 이수연 오소영 오은장(부산광역시 연제구) ▶강건주 박은숙 강명진 강승욱(부산 연제구) ▶오영구 이묘광월 오정후 오동환(부산 연제구) ▶이연용 김정자 이현경(부산 연제구) ▶박정토화 김봉리 김덕숙 심송학 심무학 심순희(부산 연제구) ▶이치우 임법혜광 이현주 이현숙 이경렬(부산 연제구) ▶이상인 이두희 이봉희(부산 연제구) ▶최성락 이행순 최재익 최재식(부산 연제구) ▶이동인 김금옥 이희원 이경희 이숙희(부산 연제구) ▶최동식 김순연 최광린 이숙자 최성관(부산 연제구) ▶손창수 오복남 손원대 손원창 손원만 손응식 송귀식(부산 연제구) ▶박해균 허순금 박점석 박경연 박기연 정은영 박소연 박수진 박진우(부산 연제구) ▶정영춘 김희자 정현주 장운석(부산 연제구) ▶손재의 하보문심 손민호 손보건(부산 연제구) ▶손복기 안은효 우지화 안인효 안혜란 이성호(부산 연제구) ▶김환조 정묘원심 김성수 길석환 박춘자 김무동화 김세훈 길정훈(부산 연제구) ▶김동진 이옥주 김정훈 김희진(부산 중구) ▶김덕용 정금감장(부산 중구) ▶이성수 김경희 이영훈(부산 해운대구) ▶박복명 오동규 오동원 오동현(부산 해운대구) ▶홍성규 신선덕화 홍기영 홍유정 홍화영(부산 해운대구) ▶김재연 강원오화 김도형 김현정 김수정 최악지(부산 해운대구) ▶김진갑 박영자 서은숙 김민제(부산 해운대구) ▶성법섭 반혜경 성기원 성기꽁(부산 해운대구) ▶박순사 손보운화 박면상(부산 해운대구) ▶황성수 박원명심 황정욱 황나영(부산 해운대구) ▶김승원 김은아 김세환 김용환(부산 해운대구) ▶허수석 이지비화 허진호 허은정(부산 해운대구) ▶안규길 이영자 안성현 안유희 안정민(부산 해운대구) ▶박정순 김용흔 김병곤(부산 해운대구) ▶최홍훈 조을연 최광복 최연우(서울 송파구) ▶이재세 조숙현 이유진(서울 종로구)

일반 ▶진송스님(충북 충주시) ▶서선스님(충북 청원군) ▶의화스님(경기 양평군) ▶준수스님(경기 남양주시) ▶원민스님(경기 남양주시) ▶조정숙 김근중 최경화 김진우 김건협 김주희 김태균 최혜연 김수영 김지영(미국 매틀랜드) ▶이강윤 조길상화 이홍재 김한상 이현경 이현정(미국 매틀랜드) ▶현종태 조정자 현유진 현소희(미국 매틀랜드) ▶조동성 윤성순 조영수 조성재 조만재 이순재 정혜숙(경기 고양시)

대장경연구소 (02)797-0585
http://www.sutra.re.kr

참여 권유의 말

"호국정신 담는 거룩한 불사"

효명스님

팔만대장경전산화는 미래라는 새로운 공간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 거룩한 불사입니다.

디지털의 세계, 그 무한 정보의 세계속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팔만대장경은 세계인에게는 인류문화유산으로, 우리에게는 민족사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국난극복의 호국 정신으로 모두에게 회향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인의 대장경으로 누구나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미래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뜻깊은 불사에 우리 신도님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후원이 전산화 작업의 후원이 되고 나아가 인터넷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하루 빨리 태어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부산 혜원정사 주지〉

"미래 인류문화 발전의 초석"

원정스님

21세기 매체, 컴퓨터를 통해 부르면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化身)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은 과거 몽고침입이라는 국난극복의 정신을 우리시대에 계승하는 민족불사입니다.

미래세대인 우리의 자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고 배우며 함께 하는 우리문화의 세계화 작업인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불교계는 물론 인류문화사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성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IMF 고통를 이겨내는 지혜의 힘을 다시 모으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사중 모든 분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다 많은 신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하루속히 원만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창원 성주사 주지〉

청년불자 통일운동 열기

남북국민의 화합으로 통일정토를 완성하려는 청년불자들의 열의가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청년불자들의 통일운동은 대북식량지원,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빼놓을 수 없는 신행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청년정토회 탁아소지원·북한알기 캠페인

청년여래회 비전향장기수 사회적응 도와

대불련·대불청 북동포돕기모금·비료보내기

지난 6월부터 북한 나진탁아소에 월 17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정토회(회장 박남규)는 매주 모금함을 들고 서울 명동일대를 삼삼오오 짝을지어 돌아다니고 있다.

또 지하철 2·4호선에서 '북한 상황 바르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회장은 "탁아소 지원금은 회원들의 성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힘은 물질보다는 마음에 있습니다. 힘든 가두모금과 전철 캠페인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라고 설명했다.

청년여래회(회장 백도영)는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사회 적응 및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정기 산행을 갖고 있다. 백회장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보호감찰 대상자로 살고 있지만 산행중의 짧은 대화에서 사상의 벽보다는 인간애 동포애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여래회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성동구민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지구장 박법수)와 서울지구(지구장 최윤선)는 지난 4월부터 '비료 한 포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모아온 5백여만원의 성금은 15일 임진각에서 열린 '민족화합통일기원대법회'에서 불교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박지구장은 "대불청 산하 통일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아직 미미하다"며 "10월중 대불청 각 지구별로 '통일일꾼'을 선발, 교육시키는 한편 방북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임혜진)도 지난해 4월부터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해 4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 수차례에 걸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적십자에 기탁해 오고 있다. 임지부장은 "땅이 합해진다고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죠"라고 말했다.

유지원 대불련지도위원장은 "90년대 이후 통일의 방법론을 고민해 온 청년불자들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이 효과적인 통일 운동의 방법이기는 하나 통일운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통일부처님 입북 무산

지선스님 방문 취소돼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9일 오전 10시,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염불 정근 소리가 메아리쳤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의 '한국불교 1600년대회'에 참여했던 대학생불자 4백여명.

통일을 염원하며 이곳에 봉안한 통일부처님의 접안식을 지켜보는 대학생 불자들은 시종일관 합장 염불을 계속하며 부처님께 통일의 도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높이 60㎝ 금동좌불인 통일부처님에는 사경한 통일반야심경도 복장됐다.

대불련은 11일 지선스님(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통해 북경을 경유, 통일부처님 입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강제징용 떠도는 영혼을 아십니까

BBS '오사카에 핀 무궁화…' 16·23일 방영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8·15 광복 53주년을 맞아 무연고 조선인들의 유골 수습활동과 잊혀져가는 유골 송환의 현실을 일본 고려사 현지에서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오사카에 핀 무궁화, 고려사'(담당 PD 한지윤)를 16일과 23일 2회에 걸쳐 방송한다.

백만 조선인들의 강제징용의 역사와 고려사에서 전개하는 위령사업을 소개한 제1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16일 방송돼 청취자들에게 유골이 돼서도 아직 고국땅을 밟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슬픈 현실을 잘 전달해 줬다.

23일 오전8시25분부터 오전9시까지 방송될 제2부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에서는 유골 봉환과 관련 조총련 산하 조선불교도연합과 민단 산하 한국불교도연합의 입장과 해결에 대한 노력,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잊혀져 가는 유골 송환의 현실 등을 마이크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30여년간 한국인의 혼을 돌봐온 태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재일 총본산 관장)의 활동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방송 소식

btn 직원 12명 보강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3명의 아나운서를 비롯한 PD, 조명기사 등 방송 제작요원과 문화사업단 사업부 직원 등 총 12명을 보강했다.

이번 채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아나운서 3명과 문화사업부 6명. 불교TV는 장웅(28), 정수진(25), 유아정(24)씨 등 3명을 선발해 현재 btn뉴스와 '불자수첩' 프로그램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6명이 늘어난 20명의 문화사업단은 '납골당분양' 등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다.

발전기금 출연 결의

불교TV 정기이사회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12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2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는 5천만원~1억원, 새 이사는 3억원을 각각 출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이사 27명 중 종단이 참여한 이사는 1억원을 개인자격의 이사는 5천만원을 불교TV 발전기금으로 추가키로 했으며 새로 영입된 12명의 이사들은 불교방송의 이사 출연금 3억원에 준해 납부키로 했다. 이번에 출연하는 이사들의 발전기금은 9월 14일부터 실시하는 '제5차 주식공모'시 주식으로 전환된다.

주부 신행담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③

'삶은 苦가 아니다' 읽고 감동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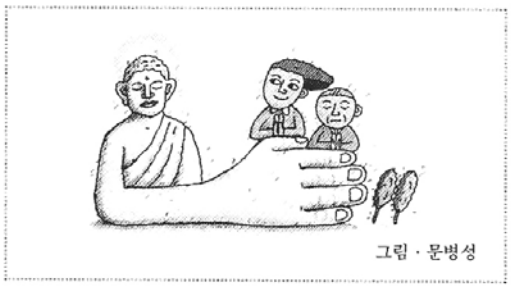
이제 우리 가족은 첫딸을 비롯해 쌍둥이들과 막내딸까지 여섯명이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고 있다. 지금도 남편은 전처럼 지나치게 과음하지는 않아도 가끔씩 주사를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땐 관음정진을 한다. 아무리 성난 파도라도 잠잠해질 때가 있다는 기다림으로 관음정진을 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남편도 잠잠해진다. 너무 무던하게 지내는 것이 어이가 없는지 때로 남편은 "너무 바가지를 안 긁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건데…"라며 투정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의 가르침이야말로 그지없이 고맙다. 지금 빠듯하게 살고 있는 삶은 전생에 보시하지 않은 탓이니 현생에선 열심히 보시의 덕을 쌓으리라 다짐해본다. 물질로선 어려운 형편이니만큼 따스한 미소, 정다운 눈빛,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하는 삶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올해들어 믿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게 된 계기가 다름아닌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신 일이다.

항상 공기처럼 물처럼 하늘처럼 계시던 아버지께서 사월초 병이 나셨다. 처음엔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기침이 오래가고 병원진단결과 폐암말기였다. 수술조차 어려운 시기여서 집에서 오빠의 정성어린 한약 투여와 어머니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목소리조차 꺼져가던 분이 다시 회생하시는 듯 하다가 결국은 먼곳으로 가셨다.

아버지가 한창 앓으실 무렵 우연히 내가 보낸 글이 MBC에 방송되었고 그 인연으로 불교방송을 알게 되어 열심히 들었다. 하루는 한 화장품가게에서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을 접하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얼마 뒤 정기 구독을 신청하였다. 그 가게에서 빌린 대행큰스님 테이프를 집에서 듣고 있던 중 어머니가 마침 오시더니 어머니 역시도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하시며 그 테이프를 빌려가셨다. 아버지께서 큰 병을 앓고 계시니 간절한 마음에 스님의 법문이 큰 울림을 주셨나 보다.



그림·문병성

초여름이었다. 앓고 계신 아버지께 죽을 드리고 난 다음 어머니는 새벽같이 안양 한마음선원에 가셨다. 전날밤 목욕하시고 참선을 마친 후 주무시던 어머니는 두분의 부처님이 황금빛 찬란하게 나투시는 꿈을 꾸셨다.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은 누워계셨다고 한다.

큰스님을 직접 친견하여 말씀을 듣진 못했지만 한 스님의 도움으로 '주인공만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 하는 구절과 〈삶은 고(苦)가 아니다〉라는 저서와 테이프 몇 개를 얻어 오셨다. 어머니는 먼발치에서 큰스님을 뵙고 눈이 마주쳤으니 친견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열심히 관하며 생활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머니의 엉덩이에 큰 물혹이 생겼다. 어머니는 참선을 더욱 열심히 하셨다. 하루는 참선 중 벼락이 치고 번갯불이 온 몸으로 섬광을 일으키며 어머니 몸을 훑고 지나갔다고 했다. 그리고는 크게 만져지던 어머니의 혹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걸 보시고 아버지께서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병마와 싸우시며 거의 잠시도 몸을 땅에 누이지 않고 '주인공만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를 화두삼아 앉아 계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니 바로 돌아가시던 날이라고 해야겠다. 밤 한시가 넘었으니. 나와 남편은 친정저비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그날 남편은 술을 좀 마셨다. 남편의 술마신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기 싫어서 한밤중에 가지 않으려다가 꼭 가야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집으로 갔었다. 아버지께선 언제나처럼 앉아 계셨다. 덥다고 하시며 윗도리엔 런닝도 입지 않고 아랫도리만 입은 채 가져간 토마토 반쪽을 드시곤 예의 주인공 글귀만 보고 계셨다. 안스러운 마음에 아버지의 온 몸을 주물러 드렸다. 아버지의 온몸은 얼음장 같이 차가웠고 손·발톱은 새파래져 있었다.

김정숙〈구미시 선산읍 생곡동〉